뭘 수색했나…단독작전 펼치다 기회 날렸다

유병언 코 앞에서 세번이나 놓친 한심한 검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검·경의 무능함과 한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 차례나 검거를 재촉했던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경찰과의 공조는 커녕, 허술한 '단독 플레이'로 세 차례나 '코 앞'에서 놓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검·경 수사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 뿐 아니라, 유씨의 주검을 확보하고도 실체 없는 행적을 쫓는 데 수사력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민을 총동원하고 사상 처음 군(軍) 병력까지 동원한 데 따른 책임론도 확산하는 형국이다.

23일 순천경찰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단독 플레이'로 유씨 검거를 위한 세 차례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유 전 회장의 행적을 파악, 순천시 서면 학구리 송치재 휴게소에 수사관을 급파했다가 50m 가량 떨어진 별장 '숲 속의 추억'은 수색조차 하지 않고 돌아가 소중한 첫번째 검거 기회를 놓쳤다. 당시 검찰은 "염소를 키우는 곳"이라는 휴게소 주인 말만 믿고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때 유 전 회장은 여기에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미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여·33)씨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헛발질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검찰은 3일 뒤인 지난 5월 25일 오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직접 송치재 휴게소를 찾았지만 이 때에도 별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검찰은 이날 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통나무집 수색에 나섰지만 신씨만 검거했다. 이미 구속된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스스로 세 번의 검거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셈이다.

■ 세번 날린 결정적 기회 보니

①5월 22일
송치재휴게소 수사관 급파 불구
50m 떨어진 별장 수색조차 안해

②5월 25일
송치재휴게소 또 찾았지만
별장안 못들어가고 발길 돌려

③5월 25일 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별장 수색
통나무 벽 안 숨은 유병언 못찾아

검찰은 이후에도 주검으로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유씨를 추적하면서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재발부받는 한심한 행태를 연출했다.

경찰과의 공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무능함을 키웠다.

인천지검은 당시 '숲속의 추억'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통나무 벽안 은신처를 찾아냈고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별장 내부에 경찰을 들이지도,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23일 인천지검의 관련 내용 공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별장에서 현금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면 향후 유씨 수색 방향이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검찰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달아난 경우 주변 수색을 강화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유씨 신병 확보가 한층 빨라졌을 것이라는 뒤늦은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략도, 원칙도 저버린 수사를 벌이면서 유씨 주검을 확보한 40일 뒤에야 "확인해보니 (유씨가) 있었더라. 뭉칫돈도 발견됐더라"며 해명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순천경찰서장,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되는 등 징계가 줄을 잇고 있지만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 김지을·이종행기자 dok2000@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어 있었던 순천시 송치재 인근 별장〈위〉과 내부 모습. 23일 검찰은 지난 5월 25일 별장 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이 별장 2층 통나무 벽안에 숨어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연합뉴스

청소·배식에 아픔 나눠…실종자 가족 일일이 챙기는 '맏언니'

회원 32명과 100일째 봉사…'진도 백조로타리클럽' 이승자 회장

"어제 아침에는 현철이 아빠랑 체육관 뒷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팽목항에서 못다한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데려갔더니 한숨만 연신 쉬더라고요"

진도 실내체육관의 최고령 자원봉사자 이승자(여·60·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사진)씨는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누님' '언니'로 불린다. 지난 4월 16일 이씨는 진도 앞바다에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김양식을 하던 일손을 놓고 실내체육관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은 이씨가 회장으로 있는 '진도백조로타리클럽' 회원 32명과 함께 100일째 이어져오고 있다. 이 단체는 일주일에 한번씩 진도의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봉사를 하는 등 30~60대 여성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다.

이씨의 하루 일과는 체육관 청소로 시작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층 바닥과 2층 의자, 화장실을 윤이 날 정도 닦는다. 1시간 동안 청소를 하다보면 입고 있던 작업조끼가 축축해질 정도다. 청소 후에는 쉴틈 없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부스를 운영하며 식사와 간식 배식을 한다.

실종 단원고 학생 남현철(17)군 아버지 남경원(45)씨는 얼마 전 폐렴으로 목포한국병원에 열흘간 입원했다. 항상 함께 하면서 가족같은 남씨를 위해 병문안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체육관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애써 참았다. 이씨는 "현철 아빠가 다시 돌아왔을때 이산가족을 상봉한 마냥 무척 반가웠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웃는 얼굴이면 마음이 편하고, 간혹 찡그리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초기 극도로 예민해진 실종자 가족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죄인처럼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나 링거 투혼을 보여가며 24시간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이씨의 노력에, 이제는 실종자 가족들이 맏 언니 누님처럼 믿고 따르게 됐다.

실종자 황지현(17)양 어머니 신씨가 최근에 뇌종양 초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된 자원봉사자도 이씨였다. 그는 "지현 엄마가 잠을 못자고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 위장병에 걸리더니 결국에는 건강을 크게 잃어 걱정이다"면서 "조금 더 신경 써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치료가 잘 끝나야 할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씨는 "모든 실종자 가족들이 다 떠날 때 까지 체육관이든 팽목항이든 끝까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도=백희준 수습기자 bhj@

해수욕장 피서객 고작 서너명 발길 뚝 끊긴 진도 관광지

관광객 급감 주민 생업 타격
일자리 찾아 목포 등 타지로

22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해수욕장에는 일가족 4명만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관매도는 진도 대표 휴양지로 피서철이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관매도 해수욕장에서 텐트 임대업을 해왔던 조민석(30)씨는 수년째 하던 사업을 접고, 목포로 나와 새 일거리를 찾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하루 평균 20~30건씩 텐트 예약 문의가 잇따랐지만 올 여름엔 단 한통화의 전화조차 없다. 조씨는 "이 모든 게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가족도 못 찾은 사람도 있는데 대놓고 금전 피해를 얘기할 순 없다" 면서도 "겨우겨우 버티다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나는 모두 정리하고 빠져나왔지만 남은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여름 휴가철이면 관매도를 비롯해 천혜의 비경이 있는 진도의 크고 작은 섬과 운림산방, 세방낙조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관광객으로 북새통을 이뤘었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까닭에 외지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었다. 수산업과 함께 진도 경제의 양대 축인 관광업마저 타격을 받아 진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진도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소전 미술관 1351명 ▲운림산방 2만8519명 ▲해양생태관 4292명 ▲진돗개 테마파크 6557명 ▲조도 5만8380명 ▲토요 민속 여행(향토문화회관) 5320명 ▲남도 국악원 6012명 등 11만431명이었다.

진도 주요 관광지 방문객 비교해 보니

운림산방
2만8519명➡8903명

조도
5만8380명➡2만8540명

토요민속여행
5320명➡1140명

반면 올해 같은 기간 진도를 찾은 관광객은 ▲소전 미술관 364명 ▲운림산방 8903명 ▲해양생태관 905명 ▲진돗개 테마파크 2174명 ▲조도 2만8540명 ▲토요 민속 여행 1140명 ▲남도 국악원 4603명 등 4만6629명으로 절반 이상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관광객이 줄어든 탓에 관광소득도 대폭 줄었다.

진도군민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16일~6월30일까지 ▲외식업(25개소 기준) 5억9200만원 ▲택시(96대) 8억6400만원 ▲노래방·유흥주점(53) 10억2700만원 등 3가지 업종 매출액은 24억8300만원 이었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 ▲외식업 3억9400만원 ▲택시 3억6000만원 ▲노래방·유흥주점 4억9700만원 등 총 12억 5100만원으로 관광 소득도 절반 정도 감소했다.

진도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도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 가족들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 편치 않지만 이제는 군민들의 경제 피해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참사 초기부터 진도 주민들이 내일 처럼 탑승객 구조는 물론 구호활동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렸으니, 이제는 국민께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도를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어머니 잃은 슬픔에 울던 30대, "조용히 하라"는 이웃 홧김 폭행

쌍나팔

○…이틀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던 30대 남성이 "조용히 하라"며 찾아와 항의하는 옆집 남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서행.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웃집 주민 B(6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가 입건됐다는 것.

○…경찰에서 A씨는 "어머니 상을 이틀 전 치르고 슬퍼서 술을 먹다 다소 크게 울었을 뿐인데 B씨가 사정도 모른 채 찾아와 시끄럽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합니다